백골예찬

5·18 민중항쟁 26주기 추모시

문병란 시인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조국 내 고향
그 향기를 흙 속에 묻혀
날로 고와진
이 아름다운 백골을 보아라

그 어느 빛나는 꽃보다 눈부신
차마 눈뜨고 바라보기마저 현깃증 나는
이 깨끗한 정결한 침묵을 보아라

산 사람들 변절하고
육신 아픔에 못이겨 굴복할 때도
백골은 오히려 불변의 모습으로
썩어 그 향기 날로 깊어지거니

이름이 없어도 좋다
명예와 훈장은 오히려 부질없는 장식
파란 이끼마저 자랑스레 간직하고
스스로 사랑했던 고향의 품에 안겨
차라리 두 평 흙구덩이 무덤이 없어도 좋았다.

두더지가 파먹고
마지막 남을 것만 남은 희고 고운 백골
천언 만사의 증언을 대신하여
이 한 조각 뼈 조각과 두개골이
우리가 숨쉬는 대지와 하늘이 아니냐.

스물 여섯 해
골짜기를 울고 간 뇌성벽력 속에서
이슬로 닦이고 바람으로 삭이고
꽃잎으로 씻기고 별빛으로 속삭이며
날이 갈수록 고와가는 주검을 보아라

흐드러진 진달래로 비단 삼고
능선을 쓰다듬는 바람으로 집을 삼아
휘영청 달밤이면 온몸으로 흐느끼는
오오 차갑게 식은 눈부신 몸부림이여
무덤마저 거부하는 빛나는 백골이여.

〈2006년 5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제에서〉

19~21일 유럽 동포 獨서 '오월 민중제'

제26회 유럽 동포 오월민중제가 19~21일 독일 빌레펠트 '자연의 집'에서 열린다. 민중제는 19일 최선주 감독의 '재식 민화된 퀼른'과 홍세련 감독의 '교포 2세', 장영수 감독의 '교포 3세' 등 3편의 영화상영으로 시작된다.

20일에는 '재독한국인 이주역사'란 대주제를 놓고 ▲독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서 있는 현 위치는 어디인가 ▲한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에 대해 토론한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17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 추모제'에서 유가족 대표가 제례(祭禮)를 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그 날 그 외침' 지구촌 전파

추모·전야제 이모저모

수백여개의 추모 리본

○…묘지 입구 길가는 참배객들이 직접 5·18에 대한 의미와 느낌을 적은 수백여 개의 '추모 리본'으로 물결.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추모 리본 캠페인'은 참배객들이 1m50㎝ 길이의 리본에 사인펜으로 직접 글씨를 쓰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한 줄에 매다는 행사.

리본에는 '우리에게 정의를 알려준 당신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힘들었던 삶의 인생길, 영혼이나마 편안하길' 등의 문구가 쓰여있는데, 하루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5월정신 무선으로 홍보

○…(사)한국아마추어 무선(HAM)연맹 광주지부 단체인 '민주성지클럽'(6L0NT·회장 김동옥)은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와 옛 도청 앞에 높이 7.5m, 길이 3.2m의 안테나 등을 설치, 전 세계와 전국으로 제26회 5·18 광주민중항쟁 행사에 대한 홍보를 무선으로 송출.

회원 46명으로 구성된 이 클럽은 20대 초반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의 직장인 모임으로,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이번 행사 취지에 맞춰 'HL518GDM'이라는 특수호출부호를 정하고 오는 30일까지 자원봉사를 할 예정.

앞자리 HL은 한국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518은 '5월18일'을 뜻하며 G는 광주(Gwangju), D는 민주주의(Democracy) 그리고 M은 운동(Movement)을 의미한다고.

담양한빛고 '5월역사' 체험

○…대안학교인 담양 한빛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185명 전원이 17일 역사 현장 체험을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

이들은 17일 새벽 6시께 담양을 출발, 차를 타지 않고 영산강을 가로지르고 농로를 따라 걸어와 2시간만인 오전 8시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

한빛고는 지난 98년부터 8년 동안 학생들에게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5·18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해왔는데, 학생들은 "5월 광주의 아픔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대만족.

외국인 30여명 행사 관람

○…지난 16일부터 열린 '제3회 광주국제평화캠프'에 참가한 외국인 30여명이 5·18 전야제가 진행된 금남로 일대를 찾아 각종 행사를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느라 분주.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아구스완디(28)씨는 "광주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오늘 분위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고국에 돌아가면 광주의 5월 정신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

참배객에 생수병 봉사

○…'추네연'(추미애를 사랑하는 네티즌 연대) 회원 4명은 묘지 입구에 천막을 치고 국화꽃과 얼음 생수병을 참배객들에게 나눠주는 등 봉사활동.

국화꽃 2천여 송이와 생수병 1천500여 병을 준비한 이들은 "멀리서 오신 참배객들께 '추미애 전 국회의원 대신' 감사드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천막을 차렸다"며 "여기 나오기 위해 회사에 빠지고, 집에도 거짓말 하는 듯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고 소개.

국순당, 제례주 500병 지원

○…'국순당'(대표 배중호)은 올해 추모제를 앞두고 정수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에게 제례주(祭禮酒)로 써달라며 700㎖짜리 '차례주' 500병을 지원.

17일 추모제 때 처음 사용된 국순당 차례주는 알코올 도수 13도로, 곡물원료를 순수하게 발효시켜 전통누룩과 '생쌀 발효법'을 이용한 우리 술의 전통방법으로 빚어낸 제례 전용주.

'국순당' 유성덕 마케팅 본부장은 "광주의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일제시대 말살된 우리 전통 술의 기원을 다시 찾고자 만든 '차례주'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

계엄·시민군 투석전 재연

○…전야제 행사 중 일부인 '계엄군과 시민군의 투석전'은 4개 대대의 계엄군과 3개 대대 시민군으로 나뉜 500여 명이 등장해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재현.

투석전은 광주공고 등 200여명 체험단과 대학생 300여명이 각각 계엄군과 시민군 역할을 맡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연좌·연와 시위, 미리 준비한 콩주머니 2천여개를 서로 던지며 80년 5월의 '어느 날'을 표현했는데, 시민들은 "계엄군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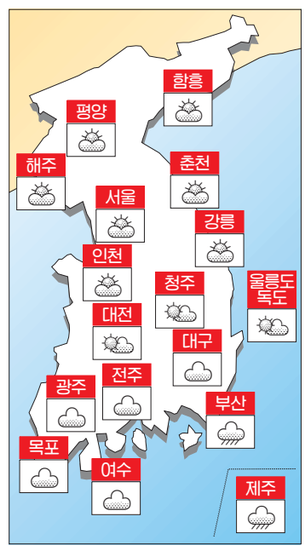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슬픈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리겠다.

5월 18일 (음 4월 21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림	17~25℃
목 포	흐림	15~22℃
여 수	흐림	16~19℃
완 도	흐림	15~21℃
구 례	흐림	16~25℃
해 남	흐림	14~22℃
장 흥	흐림	14~22℃
고 흥	흐림	14~21℃
순 천	흐림	15~25℃
영 광	흐림	14~23℃
진 도	흐림	14~21℃
전 주	흐림	16~26℃
남 원	흐림	15~26℃
정 읍	흐림	15~25℃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5:40 17:32 썰물 〈 10:57 22:51
여수 밀물 〈 00:14 12:17 썰물 〈 06:33 18:17

▲해뜸 05:27 ▲해짐 19:31 ▲달뜸 --:-- ▲달짐 09:2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날 씨						
최저/최고	18/20	16/27	14/28	15/26	17/22	15/25

어! 5·18 전야제 무대 바뀌었네

무대중심 탈피 도심일대로
5월 함성 시민 모두 공유

5·18 광주민중항쟁 제26주년 전야제가 기존의 '무대중심'에서 벗어나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시민들이 한데 어울리는 행사로 탈바꿈했다.

'5·18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위원회'(상임위원장 박석무 5·18기념재단 이사장)는 17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전야제에 특별한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분수대 앞에 무대를 설치한 뒤 가수 등을 초청해 공연을 펼쳤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행사위는 전야제에서 주부·노동자·직장인·노인 등 광주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동굿판'을 금남로 일대에서 개최, 80년 5월의 뜨거웠던 함성을 광주시민 모두가 공유하도록 했다. 또 기념공연을 펼치는 3개 팀(통일씨앗팀·민주불꽃팀·평화바람팀)을 광주공원과 조선대 정문, 광주역에서부터 각각 금남로로 행진하도록 해, 전야제의 범위를 광주 도심 일원으로 확대했다.

행사위 김옥현 사무처장은 "전야제가 시민들에게 '닫혀있는' 축제였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5·18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18일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인 '제 2회 광주음악제'도 무대를 기존의 분수대 앞에서 옛 전남도청 앞으로 옮겨, 음악제가 도청을 함께 아우르도록 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민노총이어 남총련도
5·18행사 저지 않기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에 이어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이하 남총련)이 5·18기념식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제15기 남총련(의장 김대형 조선대 총학생회장)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에 대해 물리적 저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총련은 이와 별개로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5월 정신과 반미 정신을 훼손하고, 예속적 한미동맹을 추진하는 노 대통령의 망월동 참배는 반대한다"는 선언적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권일기자 cki@